

표류, 열린 세상 향한 긍정의 언어

– 장한철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한라일보 기자 **진선희**

제주를 배경으로 벌어진 갖가지 표류 사건은 바다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임을 보여준다. 바닷길을 통해 섬과 섬이 만났고 양국의 문화가 교류했다. '물에 떠서 흘러감', '정처없이 돌아다님'이란 뜻을 지닌 표류는 기약없이 떠도는 부정적 어휘가 아니라 새로운 바깥 세상을 만나기 위한 긍정의 언어가 아닐까

바다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표류는 일상의 사건이었다. 그것은 항해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옛 문헌 중에는 표류 경험을 담아낸 표해록이 적지 않다. 바다 밖에서 뜻밖의 사건에 휘말려 낯선 세상에 던져진 표류인들이 경험한 여러 문물과 풍습을 적어놓은 표해록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흥미로운 내용으로 일찍이 해양문화의 역사를 풍성하게 만들어왔다. 표해록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표류로 죽음에 이른 인원은 문헌으로 전해진 숫자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기록으로 미처 남기지 못한 표류 경험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바다를 접하고 사는 사람들의 표류는 다반사였다.

■ 국내 해양문화의 대표적 작품 꼽혀

장한철(張漢喆 1744~?)의 「표해록(漂海錄)」은 제주 사람 장한철이 조선 영조때인 1771년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일행 29명과 함께 제주를 떠나 물으로 향하다가 풍랑을 만나 일본 유구 열도, 전남 청산도 등을 12일간 떠돌다 귀환한 경험을 기록해 놓은 자료다. 1770년 12월 25일 제주를 출발해 1771년 5월 8일 제주로 돌아오기까지 장한철의

행적을 중심으로 여정이 순차적으로 그려져 있다.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보관중인 「표해록」 필사본은 2008년 12월 제주도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표해록」과 관련 “학계에 보고된 것 가운데 가장 문헌성이 높은 해양문학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지방문화재 지정 배경과 함께 그것이 지닌 문헌적 가치를 밝혔다.

제주를 출발해 일본 유구열도의 호산도에 가까스로 도착했지만 왜구의 습격을 받고, 안남 상선에 구조된 이후에는 안남세자 피살설로 다시 쫓겨난 뒤 전남 청산도 근해에서 조난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 「표해록」의 줄거리는 지어낸 이야기보다 한층 흥미진진하게 진행된다. 게다가 여느 표해록에서 접하기 어려운 여인과의 로맨스도 나온다. 장한철 일행의 마지막 표착지였던 청산도에서 지은이와 하룻밤을 보내는 여인의 등장은 「표해록」을 당대의 인기 있는 저작물로 만든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해록」을 번역한 정병욱은 이에 더해 장한철 「표해록」이 해양지리서와 설화집으로서 문헌적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 해양지리서는 장한철 일행이 경과한 경로를 더듬으면 해로와 수류(水流), 계절풍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설화집은 「표해록」 곳곳에 제주도에 남아있는 전설이 풍부하게 기록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그 가치를 매겼다.

「그리운 청산도」라는 이름으로 장한철 「표해록」을 번역 출간한 현해당도 이 작품에 대해 “장한철의 「표해록」은 조선 성종때 최부의 「금남선생표해록」과 함께 우리나라 해양문학을 대표하는 수작”이라며 “실화임에도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저자의 탁월한 솜씨는 마치 한 편의 훌륭한 소설을 읽는 듯 하고, 그에 덧붙여 천문, 지리, 역사, 신화 등에 관한 저자의 해박한 지식은 끊임없이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평했다.

「표해록」은 표류 경험을 담은 여느 표해록처럼 목적지를 향한 출항-항해-표류-귀환의 여정을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표해록과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이 많다. 험난했던 여정을 단순히 재현해 놓는 데서 벗어나 꿈, 설화, 연애담 등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거리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현대소설에 못지않은 복선이 드러나는 등 치밀한 구성으로 잘 짜여진 문학 작품 한편을 읽는 느낌을 준다.

「표해록」의 해양문화적 성격은 바다를 헤쳐 가며 바다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면모를 헤아릴 수 있다. 「표해록」은 또한 새로운 세계의 문물과 풍속을 소상하게 전달하며 작자의 감흥이 표출되는 기행문화적 성격을 지녔다. 아울러 기록문화적 성격 한편에 일기문화적 성격이 자리하고 있다. 거친 바다를 뚫고 살아남은 표류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기록문화적 성격을 가진 「표해록」은 사적인 체험을 진솔하게 담은 일기문학인 셈이다.

■ 표류인에 대가없이 베푼 사람들

장한철 「표해록」은 특히 고전적 해양문학의 특징으로 꼽히는 바다와 모험, 고난을 헤쳐가는 인간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일찍이 국내 해양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혀왔다. 「표해록」을 발굴해 소개한 정병욱은 이 작품을 두고 우리 문학사에서 찾기 드문 해양문학의 백미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운 청산도」란 이름으로 심성재 필사본을 번역한 현해당은 장한철의 「표해록」을 조선 성종 때 최부의 「금남선생표해록」과 함께 우리나라 해양문학을 대표하는 수작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평가를 종합해볼 때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아」,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등 서양의 해양문학에 낯익은 독자들에게 장한철 「표해록」은 국내 해양문학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작품이다. 일본 유구열도에서 전남 청산도까지 너른 바다를 배경으로 극한 고통, 두려움, 사랑, 이별, 죽음 등 인간의 희로애락이 생생하게 녹아 있다. 순항했다면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과 감정들이다.

「표해록」은 작품 곳곳에 극적인 장치를 배치해 놓았다. 표류 직후 제주 부근 노어도에서 정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사공이 세 가닥 갈고리 닻을 준비해오지 않아 속절없이 표류하게 된 일이 한 사례다. 첫 표착지 무인도 호산도에서 낙원같은 일상을 보내는가 싶더니 해적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빼앗긴 일도 나온다. 또한 극적으로 안남상선에 구조돼 순항하는가 싶더니 제주목사의 안남제자 피살설 영향으로 바다로 다시 내쫓기는 신세가 된다. 결국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채 마지막 표착지 청산도에 다다른다. 이 곳에서 장한철은 어느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장한철은 4개월여 만에 제주로 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한 배에 탔다 구사일생한 동료와 친구의 때 이른 부음이었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독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사건들이 전개된다.

이처럼 장한철 일행이 고비를 넘기고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매번 빛나간다.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은 수십 명의 목숨을 바다에 내놓고서야 운곽을 드러낸다. 장한철은 어느 표류기처럼 표착지의 낯선 풍속을 그려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담 좋은 이야기꾼처럼 바다에서 경험한 수상한 날씨, 배에 함께 오른 군상들의 행동, 꿈과 설화, 독서 편력 등을 곁들여 예측불허인 바다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독자들은 작가의 생존 여부를 이미 알고 있지만, 「표해록」을 읽는 동안에는 그의 안부를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18세기에 쓰인 장한철 「표해록」은 실화에 바탕해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꿈 속에서 만났던 여인을 표착지에서 재회해 사랑을 나누는 등 허구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보이는 소설적 기법이 더해져 흥미진진하게 읽힌다. 거기다 살아남은 자의 깨달음을 덧붙여 독자들에게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장한철 「표해록」은 「청구야담(靑邱野談)」의 '부남성 장생 표대양(赴南省張生漂大洋)', 「동야휘집(東野彙輯)」의 '표

만리 십인 전환(漂萬里十人全還) 처럼 후대의 야담집에 반복적으로 실려있다. 이는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당대에 인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민중들에 의해 면면히 전승되었음을 의미한다.

■ 제주해양문화 새롭게 읽는 계기로

제주는 표해록의 단골 배경지다. 제주 앞바다를 시작으로 청산도, 일본 오키나와, 베트남, 중국 등지까지 이어졌던 제주 사람들의 표류 경험담에는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바닷길로 정처없이 떠밀려온 이들을 향한 배품이다.

장한철이 남긴 기록을 보자. 장한철 일행은 바람불고 비가 내렸던 1771년 신묘년 정월 초6일 청산도에 표착해 날이 맑은 정월 13일 섬을 떠난다. 장한철은 “이 땅은 청산도였고 주인은 박증무였다. 해안가로부터 이 마을까지의 거리는 거의 10리였다” 며 수백년 전 청산도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겼다. 청산도 사람들은 제주 표류인들에게 대가 없이 베풀었다. 장한철은 「표해록」에 도움의 손길로 제주 사람들을 다독여준 청산도 주민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놓았다.

청산도 뿐인가. 표해록의 노정을 따라나서면 바닷길을 통해 밀려든 이들을 품어안은 기록을 술하게 만나게 된다. 베트남에 표착했던 고상영 표류기에는 “촌가에 가서 입을 가리키며 배를 두드렸다. 그러자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의자에 앉히더니 차와 술을 권했다. 이어 탁자 하나에 밥과 반찬을 내오는데 푸짐하고 깔끔했다” 는 장면이 나온다. 일본 오키나와현 외판섬 요나구니에 표착한 이후 나하까지 여러 섬을 경유했던 김비의 일행의 표류기에도 섬 사람들이 또다른 섬 사람들에게 베푸는 제주에 얽힌 표류기를 통해 밖을 향해 열려있던 제주 사람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고기잡이를 위해, 진상품을 실어나르기 위해, 물건을 팔기 위해 배에 몸을 실었다 정처없이 떠밀려간 표류인들은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을 주저하지 않았다. 글을 제대로 모르는 백성들이 많았지만 생애 처음 접한 풍물을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돌아왔다.

표류인들의 경험은 때때로 진실된 눈으로 이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했다. 이방익 표해록은 한 예다. 연암 박지원은 이방익의 표류 경험담을 거론하며 “민월(양자강 이남땅)을 건너면서 중국이 안정되고 조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못 의심을 통쾌하게 깨뜨린 바, 그 공적은 그렇고 그런 일개 사신보다 훨씬 낫다” 고 했다.

제주 사람들의 표해록은 옛 기록에만 머물지



(청산도의 읍리와 당리 전경)

않는다. 수백년전 표류로 맺은 인연을 민간 교류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1477년 김비의 일행이 머물렀던 오키나와현 이리오모테섬. 표착지 요나구니와 이웃한 섬으로 김비의 일행은 이곳에서 5개월쯤 체류했다. 제주4·3유족회는 2009년 10월 이리오모테섬에서 ‘제주·오키나와 표류·교류 530주년 간담회’를 가졌다. 4·3유족회가 2008년 ‘제주4·3을 생각하고 배우고 행동하는 모임-한라산회’ 초청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했던 길에 우연히 이리오모테를 방문하면서 성사된 행사다. 2009년은 김비의 일행이 제주로 살아돌아온지 53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리오모테섬 간담회 참석자들은 비극적인 역사를 간직한 제주와 오키나와가 김비의 표류를 평화 교류의 밑돌로 삼아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뜻을 모았다. 이들의 바람처럼 내실있는 교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제주 관련 표류기에 대한 조명과 더불어 각계의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같은 해 제주도의회에서는 장한철 「표해록」을 토대로 해양박물관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장한철의 「표해록」에 담긴 제주인의 진취적 기상과 해학, 위기를 헤쳐가는 지도자의 역량 등에 주목하며 고향인 애월리에 해양박물관을 짓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다.

제주에 표류 관련 유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산방산 자락 용머리해안에 들어선 하멜상선전시관이 대표적이다. 빼어난 풍광을 품고 있는 곳에 지어진 공간이지만 표착지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고 전시관 콘텐츠가 부실하다.

표류기를 통해 제주섬 해양문화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인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섬이라는 특이성에서 비롯됐다. 해상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오랜 세월 이어져온 영등굿은 바다를 끼고 사는 제주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대표적 유산으로 꼽힌다. 그에 더해 다양한 사연이 담긴 표해록이 있다.

제주를 배경으로 벌어진 갖가지 표류 사건은 바다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임을 보여준다. 바닷길을 통해 섬과 섬이 만났고 양국의 문화가 교류했다. ‘물에 떠서 흘러감’, ‘정처없이 돌아다님’이란 뜻을 지닌 표류는 기약없이 떠도는 부정적 어휘가 아니라 새로운 바깥 세상을 만나기 위한 긍정의 언어가 아닐까. 



〈장한철 일행이 표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청산도 바닷가〉



〈영화 '서편제' 촬영지로 알려진 섬 입구의 청산도 표지석〉